

수원시 먹거리 정책을 위한 의정토론회

일시 2017년 3월 16일(목)
장소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
주최 수원시의회 · 수원시정연구원
주관 수원시정연구원



목차

CONTENTS

행사개요

기조발표 005 **국내외 도시 먹거리 정책의 동향과 방향**
허남혁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종합토론 027 **토론 ①**
수원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김지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033 **토론 ②**
수원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반재운 로컬푸드지원센터 센터장

053 **토론 ③**
급식
송미영 수원시 동성중학교 영양사

055 **토론 ④**
수원시 먹거리 정책 토론회 토론문
구경숙 일반시민(학부모대표)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120'		
16:00	16:05	5'	개회선언	사회자
16:05	16:30	25'	기조발표	허남혁
16:30	17:40	70'	종합토론	토론자 6人
17:40	17:50	10'	질의응답	
17:50	17:55	15'	총평	좌장
17:55	18:00	5'	정리 및 폐회	사회자

*사회자 : 윤정원 (수원시정연구원 예산회계팀장)

발표자 및 토론자

구 분	이 름	소 속 및 직 위
좌 장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발 표 자	허남혁	(재)지역재단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김지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반재운	로컬푸드지원센터 반재운 센터장
	최인애	수원문화재단 주임
	송경호	수원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
	송미영	수원시 동성중학교 영양사
	구경숙	일반시민<학부모대표>

기조발표

국내외
도시 먹거리 정책의
동향과 방향

허남혁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국내외 도시 먹거리 정책의 동향과 방향

허남혁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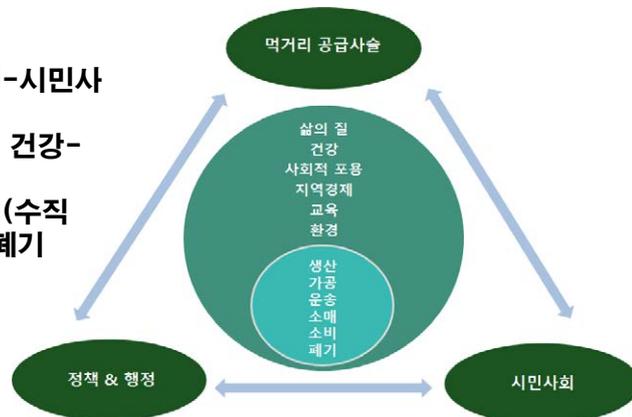
1. 등장 배경

- **결정적 계기: 2007~8 글로벌 식량위기**
 -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의 시대에, 양적 & 질적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을 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기아와 비만의 역설
 -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자구책 모색: 식량안보의 지역화, 권리로서의 먹거리(Amartya Sen, 먹거리기본권)
- **사회적 흐름: 먹거리를 통한 건강(health), 생태(ecology), 사회정의(justice)의 가치실현**
 -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의 급성장 맥락
 -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증대
 -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도시정부의 의무

2. 개념 및 구성요소

- **개념:** 도시가 먹거리체계의 변화를 그려보는 방식과 이런 변화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 비전선언문, 실행계획, 목표지표로 구성
- **핵심전략:** 기존 행위자들이 펼쳐온 노력들을 활용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먹거리를 도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

- 1) 먹거리공급(시장)-정책/행정-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 2) 다양한 분야간 협력(수평적): 건강-환경-지역경제-문화-교육...
- 3) 먹거리체계 내의 단계간 협력(수직적):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2. 개념 및 구성요소

- **핵심 개념**
 - 건강중심 사례: 토론토, LA
 - 경제중심 사례: 뉴욕, 브리스톨, 밴쿠버, 필라델피아
- **핵심 정책수단**
 - 공공조달
 - 도시계획 시스템(토지이용계획)
 - 인프라 개발: 도시농업, 로컬푸드 유통 관련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푸드시스템

푸드시스템 접근의 핵심

푸드시스템 접근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 공급사슬의 주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다른 부문들 간의 관계
- 다양한 공급사슬 주체들과 소비자와의 관계
- 먹거리생산과 공급의 안정적 보장과,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활용과의 관계

푸드시스템 접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 고도로 협력적인 공급사슬에 대한 지원
- 공급사슬 외부에 있는 행위자들과의 협력
-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수요와 건강/웰빙에 대한 고려의 이해
- 먹거리 생산/공급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의 이해
- 지속가능성, 공정성, 건강, 사회적 기대가 먹거리 생산/공급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대한 이해

자료 : Toronto Food Policy Council et al. 2013.



지속가능한 먹거리

- 먹거리를 구매하는 개인, 단체, 기관, 지자체, 국가가 먹거리 구매에 있어서 준수하기로 합의한 기준 (최소 기준 & 우선 기준)
- 먹거리 안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핵심 가치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종합적 고려
 - 최소 환경기준, 노동기준의 준수
- 농산물: 유기농 인증, 로컬푸드(지역농민 직거래), 체험교육
- 수산물: 지속가능성 인증, 슬로피쉬
- 축산물: 동물복지/유기축산 인증

=>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직거래, 도농상생의 가치

기조발표_허남혁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공공조달

○ 로컬푸드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우선적 공공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공공조달과 민간영역까지 적용

- 중앙정부(영국), 지방정부/도시(LA, 코펜하겐), 대형행사(밀라노엑스포, 2012런던올림픽, 2016리우올림픽)
- 유엔 SDG 12.7: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
- OECD 보고서(2016): 학교, 병원 등 여러 공공기관들은 먹거리를 대량으로 구매한다. 공공부문 먹거리조달 내에 지속가능성 차원이 포함되면 생태발자국 저감과 시민사회 참여 증진의 효과 기대

Alternative Futures for Global Food and Agriculture



OECD

○ 공공조달의 방향

- 로컬푸드/유기농/공정무역제품 조달 확대
- 소농, 사회적경제 생산자/공급자 조달 확대
- 생산물의 환경요건, 노동요건 강화: 요건미달산물 구매축소
-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 신선과일채소 확대, 직접조리 확대, 가공식품 저감, 식교육병행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건강한 식사/먹거리 제공 확대



먹거리권(right to food)과 도시권(right to the city)의 결합

○ 인권 기반의 접근

- 유엔 먹거리권 정책: 먹거리 생산-소비에서의 기본적 인권 보장
- 2000년 유엔 먹거리권 특별보고관 제도 신설: 먹거리권 정의(2008) "소속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금전적 구매수단을 통해 정기적·영구적·무제한적 접근성을 가질 권리. 물리적·심리적, 개인적·집단적인 충족과 두려움 없는 삶을 보장한다"
- 유엔 해비타트 III: 기존의 주거권에서부터 포괄적 도시권으로의 전환 요구

○ SDG와 도시먹거리정책의 시대, 먹거리권과 도시권의 결합

-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도시가 중심이 되어 주도
- 도시의 시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도시민들의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와, 도시공간에 대한 권리(도시농업과 먹거리활동)로서의 도시권과 먹거리권 담론의 결합 가능성



2. 개념 및 구성요소

<핵심 주제들>

- 건강과 웰빙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등)
- 환경 (먹거리체계의 환경영향 감소: 탄소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 증진 등)
-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 (지역 생산자, 소매업체, 시장,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녹색경제 지원)
- 사회적·문화적 측면 (지역 식문화의 증진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복원력 있고 긴밀하게 결속되도록 지원하고 먹거리 친화적인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추가적인 주제들>

- 먹거리보장 및 사회정의 (먹거리빈곤 대처, 적당한 가격의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먹거리사슬 내의 공정성 증진, 공정한 먹거리체계)
- 학습 및 역량강화 (평생학습, 주민 역량강화 등)
- 도시-농촌 간 연계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

2. 개념 및 구성요소

• 성공을 위한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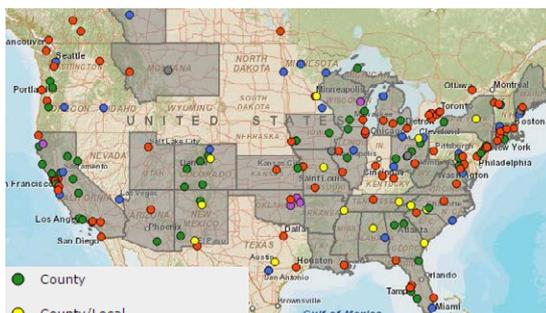
- 1) 비전의 명확성
- 2) 포괄적 접근의 채택
- 3) 명확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
- 4)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유도
- 5)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확립
- 6) 문화적 변화의 유도

=>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적극적 관여와 참여

3. 국제적 추세

- **선행 도시들의 사례**
 - 캐나다 토론토(1991): 먹거리정책위원회
 - 브라질 벨루오리존치(1993): 먹거리-영양보장사무국
 - 영국 런던(2004): 런던푸드전략
- **북미에서 먹거리정책위원회의 지속적 확산과, 영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네트워크 결성(2011)**
- **FAO와 ICLEI의 결합**
 - FAO의 food for the cities 이니셔티브(2001)
 - ICLEI의 cityfood 분과 결성(2013)
- **밀라노 엑스포의 도시먹거리정책협약(2015)**
 - 2015.10.16 전세계 40여개 도시들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협약
- **유엔 해비타트 III 총회(2016.10 에콰도르 키토)**
 - 주거권과 도시권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모색

북미의 먹거리정책위원회



- 1982년 테네시주 녹스빌 시작
- 주, 시, 카운티 단위에서 결성
- 영국의 브리스틀이 영국 최초 (2011)
- **핵심활동**
 - 정책자문
 - 변화를 위한 정책수립
 - 네트워킹
 - 교육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
MOVING
THE GOOD FOOD FOR ALL
AGENDA



**CHICAGO
FOOD POLICY
ADVISOR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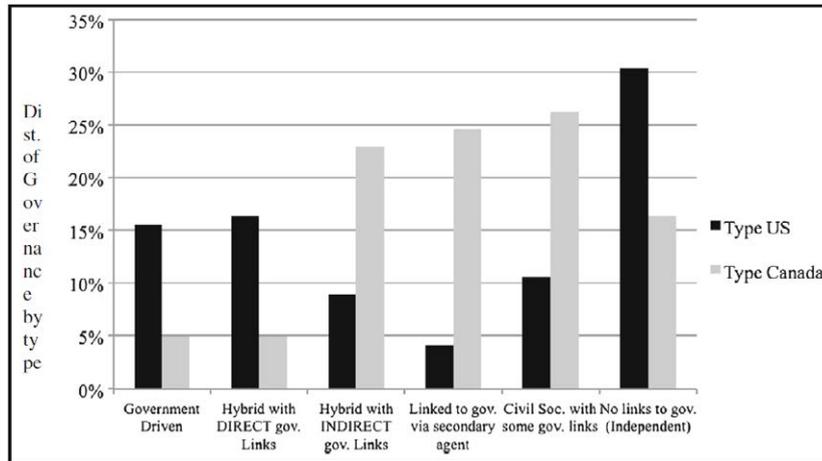


**Detroit Food
POLICY COUNCIL**



**vancouver
FOOD POLICY COUNCIL**

북미의 먹거리정책위원회 - 거버넌스 형태 -



(US n=105 and Canada n=61)

- 거버넌스 형태가 매우 다양함
 - 반드시 지자체 주도도 아니며, 오히려 지자체와 독립된 시민사회 기구인 경우가 더 많음



영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네트워크

- 2011년 10월 결성: NGO의 네트워크 조직
- 2015년 현재 40개 도시 가입
- 6대 영역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제공
 2.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증진 통한 먹거리빈곤과 식원성질병 퇴치
 3. 지역공동체의 먹거리지식 증진
 4. 활력있는 먹거리경제
 5. 급식과 공공조달의 변혁
 6. 먹거리체계의 폐기물과 생태발자국 감축



ICLEI의 CITYFOOD분과

The screenshot shows the ICLEI websit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 Navigation: HOME, MEMBERS, ACTIVITIES (highlighted), JOIN
- Sub-header: RESOURCE-EFFICIENT AND PRODUCTIVE CITY
- Main Title: CITYFOOD: A new ICLEI / RUAF initiative
- Logos: Resilient Cities series, RUAF FOUNDATION, ICLEI
- Text box: CITYFOOD: Linking Cities on Urban Agriculture and Urban Food Systems

- 2013년 6월 창설
- 목표: 회복력있는 도시지역 먹거리체계, 도시농업, 근교농업에 대한 인식 증진
- 2015년 4월 ICLEI 서울총회의 서울선언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생산 프로젝트와 회복력있는 도시먹거리체계 관련 프로그램을 장려” 천명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

- 밀라노엑스포의 유산의 일환으로 전세계 117개 도시가
2015.10.16 세계식량의날에 맞춰 밀라노 엑스포장에서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체결
 - 전세계 대도시들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 먹거리 기본권에 기반한 먹거리체계의 구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적 규약의 형태
 -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식생활,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 유통, 먹거리 낭비(폐기) 등 6개분야별 37개 실천과제 제시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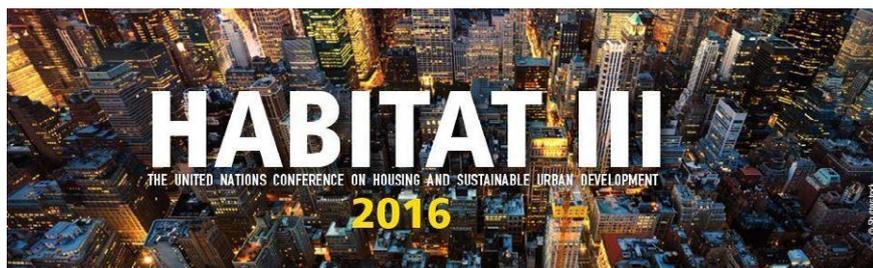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2016~2030)



유엔 해비타트 III (2016.10 키토)

- 유엔 해비타트(인간주거계획):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엔기구
- 해비타트 I (1976 몬트리올) => 해비타트 II (1996 이스탄불) => 해비타트 III (2016 키토):
주거문제 => 주거권 => 도시에 대한 권리로 확장
- 해비타트 III (2016)
 - 6개 분야 22개 주제 중에서 "10. 도시-농촌 연계" 주제
 - 도시-농촌 연계(urban-rural linkage): 도시, 도시근교지역, 도시지역 간의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적인 기능과 사람·자연자원·자본·상품·고용·생태계서비스·정보·기술의 흐름
 - "먹거리 낭비와 손실", "도시농업", "먹거리 가치사슬", "도시화로부터 농지보전", "도시권 먹거리체계 구축을 통한 먹거리와 영양보장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내용



4. 모범사례 (1) 캐나다 토론토

- 먹거리정책위원회 창설(1991)
- 토론토 먹거리헌장(2001)
- 토론토 먹거리전략계획(2010)
- 보건국 관장 거버넌스

TORONTO FOOD
POLICY COUNCIL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Toward a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System
for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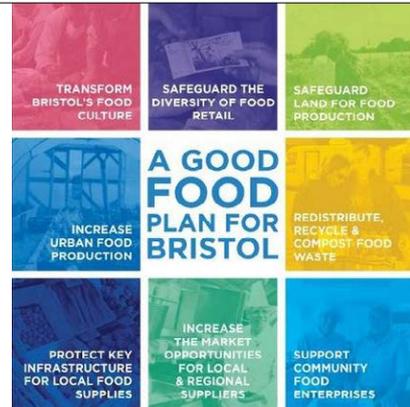
May 2010

25 Food Connections to the City of Toronto



4. 모범사례 (2) 영국 브리스톨

- 브리스톨 푸드네트워크(2006):
NGO들의 우산조직
- 실태보고서(2010): <누가 브리스
톨을 먹이는가>
- 먹거리정책위원회(2011) 창설
- 브리스톨 굿푸드 계획 수립
(2013.12)



BRISTOL
2015
EUROPEAN
GREEN CAPITAL

BRISTOL
GOOD
FOOD
AWARDS 2012



4. 모범사례 (3) 미국 LA

- 먹거리정책위원회(2010)
- 전략계획(2010): <모두에게 좋은 먹거리를>
- 굿푸드 구매정책(GFPP)(2012)
 - 5대 목표범주: 1)지역경제, 2)환경적 지속가능성, 3)가치있는 노동, 4)동물복지, 5)영양
 - 공공기관별로 점수부여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

기조발표_허남혁

4. 모범사례 (4) 영국 브라이튼 & 호브

- 푸드파트너십 창립(2003)
 -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시민사회조직: 중간지원조직 형태
 - 재원: NHS, 시의회, 기타 기금
- 전략계획 수립: 1차 2006, 2차 2012
- 영국내 다른 도시들의 비슷한 사례: 런던, 브리스틀



Support For You About What's On Help Out Blog Contact



항목	런던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먹거리 전략 창출 계기	2006년 런던시장 승인	2009년 시장 명령	1991년 (먹거리정책사안에 대한 토론토 시장 자문기구 토론토건강위원회 하위위원회) 만들어진 토론토먹거리정책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토론토의 오랜 먹거리정책
시행책임 주도부서/기관	광역런던청(GLA) 푸드팀과 런던푸드위원회(LFB: 자문그룹)가 시행을 감독	샌프란시스코 먹거리정책위원회(시민단체와 공무원으로 구성)와 47개 시청 부서(분야별 실천업무)	토론토 공공보건국(시정부 기관)
인력 지원	런던개발청(LDA)로부터 나왔지만, 현재는 GLA 푸드팀을 통해	2002년부터 보조금, 사무공간 및 기타 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원받아오다, 2008년 시 산하에 푸드 시스템 담당부서 신설. 47개 시청 부서 담당자에 실천가능한 대응과 정기적 개정을 요구	토론토 공공보건국 인력, 토론토먹거리정책위원회 코디네이터
정책/규제들의 통합	2011 런던계획에 일부 통합되었으나, 전략계획 상의 상당수의 실천과제가 지자체의 권한 밖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명령의 원칙들을 지자체 코드, 일반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정책문서들에 통합하는데 우선순위. 시청 부서들에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통합을 실천	먹거리전략 우선순위를 기존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 토론토시의 사법·입법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 시청 부서 및 기타 파트너들의 실천과 역할을 분명히 확인
행위자 공동 파트너십	LFB는 2005년 런던푸드 전략계획 입안을 담당했던 자문그룹이었으며, 현재는 시행을 감독, 독립적인 먹거리정책 단체들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푸드시스템 각 단계별 전문가들로 구성	명령은 광범위한 공무원, 운동단체, 업계 대표자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짐	핵심 파트너로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 토론토 학교위원회, NGO들과 상위 지방 정부들이 있음
시민참여 메커니즘	파트너 단체들의 참여(Sustain, London Food Link, 그리니치 협동조합개발청 등). 자치구의 시민주도 먹거리정책 출범에 대한 지원	몇몇 시민주도 연대체들로부터의 의견개진(San Francisco UA Alliance, San Francisco Food Security Task Force, Southeast Food Access 워킹 그룹, Tenderloin Hunger 태스크포스)	60개 이상의 단체와 조직들이 참여하는 공청과정

5. 국내 관련 계획수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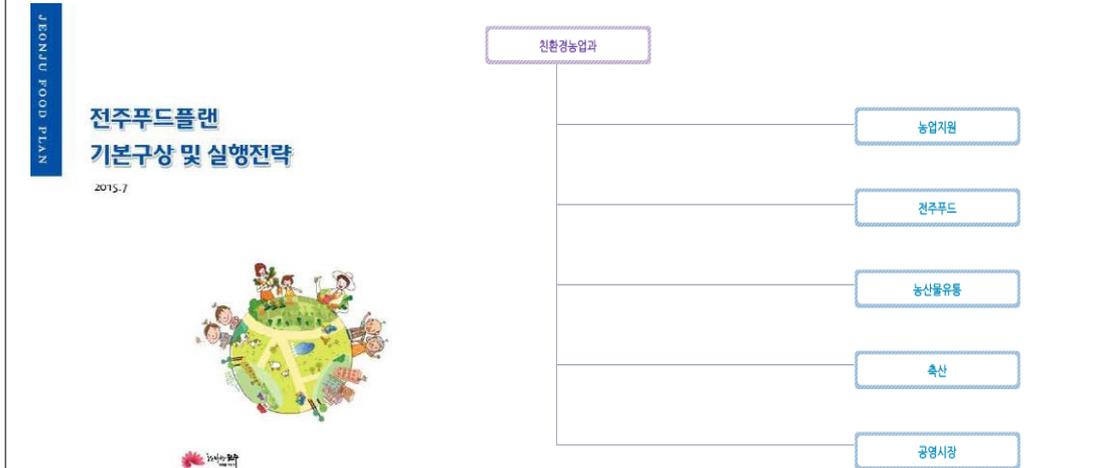
- 도시먹거리계획
 - 보고서: 서울(2013.1), 전주(2015.7) (원주 민간보고서 2009)
- 로컬푸드 조례, 계획: 직매장 설치운영에 초점
 - 조례: 4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 계획: 일부 지자체(세종시, 유성구 등)
- 도시농업 조례, 계획: 로컬푸드보다 활성화
 - 조례: 7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 2014년부터 법정계획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농식품부, 2014,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침)

현재의 문제

- 문제파악의 난관
 - 개념과 비전설정의 공유 문제
 - 데이터 수집의 문제
 - 공공급식 현황파악의 문제
- 제도화 방안의 난관
 -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조례 및 계획수립 방안
 - 모범사례 공유 방안
- 먹거리와 농업이 여전히 도시정책/환경정책 내에서 주변적인 주제라는 한계
 -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도시계획 등에서 과연 잘 대표되고 있는가의 문제

전주푸드플랜 사례

- 2015년 3월 시청 문화체육관광국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드게 신설(나영삼 계장 영입)
- 2015년 7월 용역최종보고(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박사)



전주푸드플랜 보고서 목차

제1장 계획개요

1. 연구개요
2. 전주현실
3. 대응방향
4. 전주의 힘

제2장 진단과 방향

1. 생산현황
2. 유통현황
3. 소비현황
4. 사회현황
5. 도시농업 현황
6. 대응방향

제3장 푸드시스템

1. 푸드시스템의 개념
2. 푸드플랜의 성격
3. 푸드플랜의 구성요소
4. 해외 푸드플랜 사례
5. 푸드플랜 도시사례
6. 먹거리 정책의 특징

제4장 전주푸드플랜 기본구상

1. 개념 및 정의
2. 가치와 지향
3. 비전과 목표
4. 정책체계 설정

5장 전주푸드플랜 실행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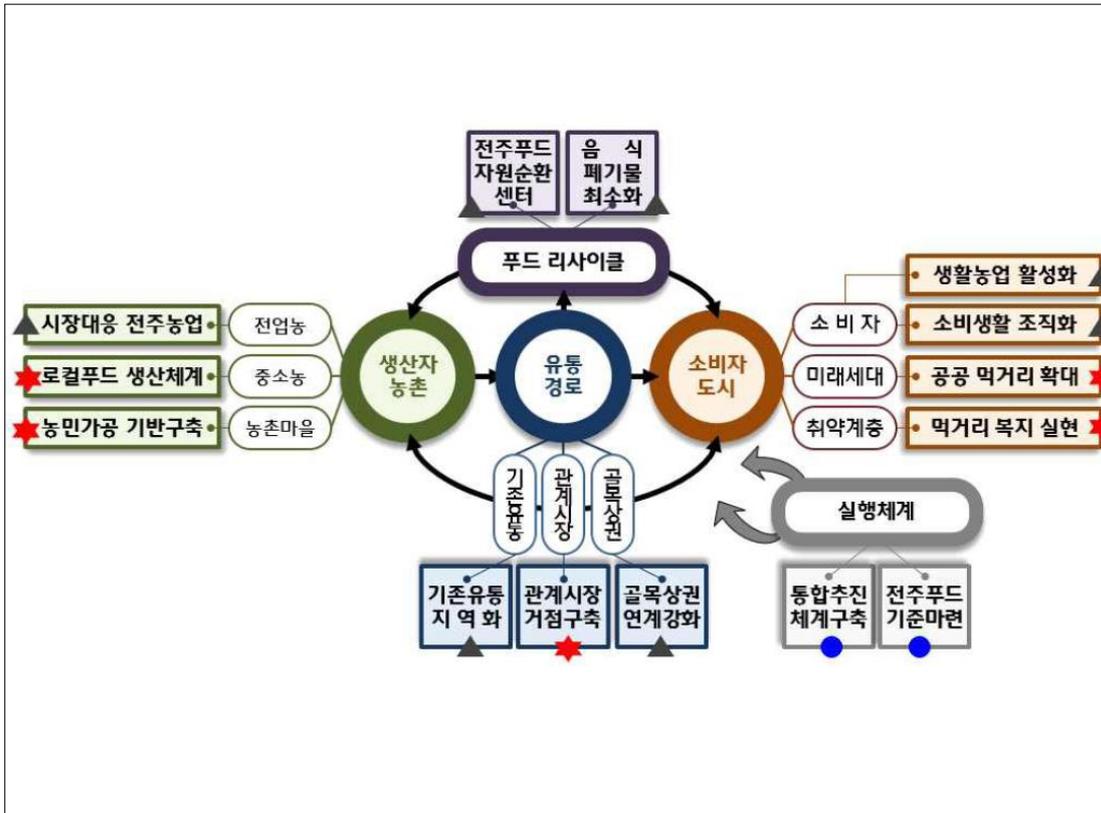
전주푸드플랜 실행전략 종합

- 분야 1. 전주푸드 생산체계
- 분야 2. 전주푸드 유통체계
- 분야 3. 전주푸드 소비체계
- 분야 4. 전주푸드 리사이클
- 분야 5. 전주푸드 실행체계

제6장 전주푸드플랜 추진계획

1. 전략별 특성 설정
2. 추진단계
3. 과제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제7장 전주푸드플랜 세부사업(안)



국내 공공급식 사례

-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사례 이외에는 로컬푸드 제공 사례도 그리 많지는 않음**
 -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비 차액지원사업(주로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생협에서 구입)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보유한 지역에서 (유치원 포함하여) 희망하는 개별 어린이집에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례들
 - 옥천군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옥천살림 위탁공급), 옥천군 영양플러스 사업(옥천살림 위탁공급)
 - 병원 사례는 아직 전무: 하지만 시립/도립의료원은 상당수가 학교와 비슷한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전환이 비교적 용이(단, 위탁급식도 있음)
 - 일회성 제공사례는 간혹 있음: 충남도청 구내식당 사례(주 1회, 월 1회 충남산 친환경식재료 사용의 날). 하지만 상시적 공급은 아님
- **다만,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들에서 고민하고 있음 (계획 & 시범사업)**

서울시 사례

-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준비**
 - 2013년부터 연구용역 및 위원회 개최를 통해 내용 고민
 -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 가입(2015.10)
- **플랜의 핵심사업으로 도농상생을 중심가치로 하는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사업을 계획중(2016)**
 - 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시립병원
 - 도농상생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로컬푸드 식재료의 직거래 공급방안 모색중
 - 현재 연구용역중, 내년 시범사업 준비중

경기도 사례

- **공공기관 급식 식재료로 관내 농산물 우선 공급계획 발표(2016.5)**
 - 사업개요: 2016년 4월 3개 공공기관(도청 구내식당, 어린이집 2곳) 시작. 연내 5개로 확대계획(6억); 2020년까지 423개(100인 이상 기관 대상)로 확대 계획(800억, 13만식)
 - 근거규정: 경기도 로컬푸드조례 제15조(공공기관 우선구매) => 개정 추진
 - 근거상위정책: 경기도 넥스트농정2020계획
 -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계획

2016. 5. 26.



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2	1	x	담당 : 민경록 (031-8008-5466/010-3442-7805) 팀장 : 장태일 (031-8008-5458) 과장 : 문제열 (031-8008-2620)

보도일시 : 2016. 5. 26. 배포 즉시

경기도, 공공기관에 관내 농산물 우선 사용 추진키로

완주, 전주, 화성, 세종 사례

- **재단법인의 형태로 로컬푸드/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립 방식의 채택**
 - 완주식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추진 지자체들이라는 공통점
 - 학교급식/공공급식에 로컬푸드 농산물을 현물지원하는 사업
- **완주: (재)은고을공공학교급식통합센터(2013.3)**
 -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 공급중(전품목)
- **전주: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센터(사업부)(2016)**
 - 올해 시범사업 추진중(어린이집, 노인복지, 요양시설 등 13개소)
- **화성: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2016.1)**
 - 공공급식팀에서 향후 공공급식 공급계획
- **세종: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2016)**
 - 올 9월부터 유치원 27곳(공립 24, 사립 3개소)과 고교 11개 학교 등 36개소에 현물급식 지원(농산물)
 - 이후 단계적으로 전 유.초.중.고 확대계획

6. 시사점

- **명확한 비전 설정**
 - 어떤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배제할 것인가
- **결정 및 실행기구의 확보(거버넌스)**
 - 지자체의 각 부서 &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 상설적 코디네이터의 확보
 - 다른분야 주요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협력: 건강도시, 탄소저감, 서울도시계획2030
-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수단 확보**
 - 공공조달 지침의 실행: 학교급식, 공공급식, 민간자발지침
 - 먹거리복지 현물지원 메커니즘의 강구



종합토론

김지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반재운

로컬푸드지원센터 반재운 센터장

송미영

수원시 동성중학교 영양사

구경숙

일반시민<학부모대표>

수원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김지연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1.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 2012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발족한 이래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수원시청 생명산업과의 학교급식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산물과 김치 공동구매를 위한 업체 선정업무 및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에 비해 방사능검사 건수를 80건에서 126건으로 강화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먹거리 수업을 관내 초.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순환 먹거리 체험, 생산지 체험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 중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먹거리 수업을 관내 초.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순환 먹거리 체험, 생산지 체험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 중이다.

2. 급식비 지원 현황

- 수원시는 만3~5세와 초등 및 중학교 347개 학교 12만8천54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2017년 현재)
 - 수원시는 물가상승률과 우수 음식 재료 사용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70원, 중학교는 120원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인당 급식 단가가 2680~3460원, 중학교는 3520~4270원까지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립유치원은 2460원으로 동결됐다.
-

- 작년까지는 718억4천6백만 원 중 경기도 50%, 수원시 50%로 수원시가 359억 원을 지원 하였으나 올해는 총 급식비용 723억 가운데 수원시는 289억 원을 지원한다.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비 50%, 교육청 50%, 중학교는 시비 25%, 교육청 34%, 도비 41%로 나뉘서 지원하기로 했다.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장규모는 한해 1,000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상급식정책은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그리고 2012년에는 중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유치원 3~5세와 초등, 중등 전 학년으로 정착되었다.

3. 학교급식의 방향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지원하는 급식비를 고등학교까지 넓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급식이 복지라는 개념을 넘어 국가의 의무이자 교육의 일환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학생시절에 접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이 평생의 식습관이 되고 이는 국민으로 누려야할 건강권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 현재 부천과 광명에서는 GMO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로 납품되는 식자재 중 GMO가 우려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옥수수 등의 재료를 NON GMO 식자재로 차액지원하고 있다.

부천

추진방향

-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부천시 친환경 급식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성 제고
- 친환경(국내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친환경 우수 가공 식품 공급 확대
- Non-GMO 가공식품 공급을 통해 급식의 공공성 제고

구분	1식당 급식량	㉑ 1년 사용 예정량(kg, L)	㉒ kg당 평균단가	㉓ 교육청 공동구매단가	㉔ 차액 (㉓-㉒)	지원금(원) (㉑×㉔)
고추장	5g	23,859	3,240	8,420	5,180	123,589,620
된장	2.5g	11,185	2,650	6,720	4,070	45,522,950
국간장	1g	5,146.70	3,062	5,630	2,568	13,216,726
진간장	2.7g	11,980.80	2,944	5,200	2,256	27,028,685
식용유	18.8g	82,468.50	1,850	3,700	1,850	152,566,725
합계		134,640				361,924,706

2017년 Non-GMO 가공식품 지원 계획

- ※ 소요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예상(중학교 185일, 고등학교 175일)
- ※ 중학교 28개교(21,290명), 고등학교 2개교(2,350명) 신청
(고등학교는 2017 하반기 추가 신청 예정)

관련 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

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1.1.~2017.12.31.(1년)
- 대 상 : 22개교(관내 중·고등학교 전체)
- 사업비 : 400백만 원
- 사업품목 : 식용유,된장,고추장,국간장,양조간장,옥수수콘 등
- 내 용 : 경기도교육청 주관 식재료 가공품 공동구매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한 품목(광명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브랜드)

②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

③ 품목별 지원단가

품 목 명	유 형 별	연간사용량 (kg)	지원단가 (원)	총사업비(천원)
식 용 유	중 학 교	34,865	1,463	51,008
	고등학교	41,578	1,470	61,120
된 장	중 학 교	4,919	2,696	13,262
	고등학교	8,336	5,315	44,306
고 추 장	중 학 교	12,138	4,386	53,238
	고등학교	15,690	5,661	88,822
국 간 장	중 학 교	2,829	1,604	4,538
	고등학교	4,986	2,535	12,640
양조간장	중 학 교	5,031	864	4,347
	고등학교	10,212	2,616	26,715
옥수수콘	중 학 교	3,084	2,088	6,440
	고등학교	3,711	3,091	11,471

- 수원시는 공립유치원 83개, 단설유치원 8개, 사립유치원106개, 초등학교 97, 중학교 56, 고등학교 44개로 총 학생수가 14만 여명이 넘는다. 이는 광명시, 부천시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 수이다. 환경도시, 농업도시로의 높은 위상을 지닌 우리시는 하루 빨리 NON GOM 식자재 차액 지원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방향

- 2012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발족한 이래 우리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수원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생활 개선사업을 진행 하여 왔으나 학교라는 틀을 벗어 날 수 없어 학부모에게만 국한되어 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다. - 단순히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양적 질적 먹거리 보장에 대한 시민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이는 왜곡된 형태의 먹방, 쿡방이라는 미디어의 소비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
- 수원시는 2011년 9월 수원시 식생활교육 조례가 통과가 되어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2 제2항
- 수원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 1항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수원시의 원활한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
활 사업을 수원시의 시민 모두에게로 넓혀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수원시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다른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 ⑤ 시장은 식생활 교육 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6)
 - ⑥ 기타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원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반재운
수원 로컬푸드지원센터



현재 우리는...



규모 : 부지 1,186㎡, 연면적 996.14㎡(지하1층, 지상2층)
시설 : 판매장, 검사실, 소포장실, 사무실, 냉장·냉동창고
출하농가 : 300여 농가
누적방문고객(3월) : 3,000여명 일평균매출(3월) : 3,300천원

우리의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먹거리 위험사회, 탈출전략이 필요하다

**삼양라면 터키 수출 거부당한 이유?
몬산토 용병 우크라이나정권 뒤집은 이유?**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조작 농산물
- 한국, 식용GMO최대 수입국 : 매년 GMO콩, 옥수수, 카놀라유(통조림용 기름)790여만톤 수입 식용 207만톤
 - 위키리크스 폭로 : 미국 GM고나플랑 113개국 926개/
 - 'GMO 표기 확대' 국회 상임위 통과 : GMO DNA·단백질 잔류 없을 땐 표기 제외
 - 농진청 GMO실용화사업단 : 200품목GM개발, 상용화 선언, 친환경법에 포함

한국 농업 설 자리를 잃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곡창지대 철원평야(철원 오대쌀)에
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는 까닭은?**



철원군 하우스 면적 : '11년(202ha)-
'15년(397ha)
(파리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작목전환-생산과잉-가격폭락-부채증가

쌀농사가 희망이 없으니 하우스로
옮겨가고,
또 하우스가 많아지니 과잉생산 되고,
"농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들녘 풍경



풍년기근 일상화/
갈아엎기

- 농사가 예측이 더 불가능해졌다(돈 되는 게 없다)
- 생산비는 자꾸 높아진다(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농자재)
- 농민 육이 줄어들었다(유동 육 커지고, 생산비 보장 안된다)
- 소농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규모화 전략에만 집중)
- 노인만 남았다(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중위대금 직선시(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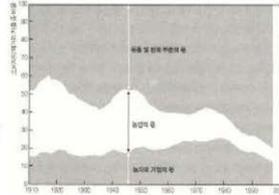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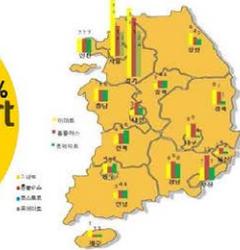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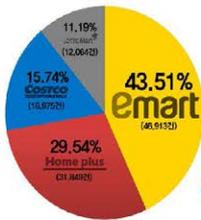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분	내역	금액
농	년	1	2,000	10,000	수수료	0원	0원
매입	kg	10,000	700	7,000	운임	7,500원	7,500원
					하차비	1,500원	1,500원
					계		9,000원
합	계			10,000원	계		9,000원
잔액					잔액		1,000원

▲ 최금례 할머니 매실 10kg, 5박스 통장입금액 : 300원
(수수료 : 700원, 운임7500원, 하차비1500원)

밥상과 농업은 왜 멀어졌나? (국내/ 유통)

**유통시장개방, 대형마트가 소매 80% 차지
부의 지역 외 유출 고착화(심화)**

● 대기업의 유통 독점/ 골목상권 위기/ 농민브랜드가 없어진다(PB상품)



●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 연 8000억 벌고, 지역환원 쥐꼬리(5~6억원)

중국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 (한-중FTA 국회비준)

산시성에는 1억평의 사과 수출전진기지가 있다

1) 검역 지역화 : 동물 전염병과 식물병해충 지역별 청정화 작업
(WTO/SPS협정)/ 한-중FTA별도 협정키로...
5개 시범구(산둥반도, 요동반도, 사천분지, 길림송유평원, 해남도)

❖ 산시성의 사과수출전진기지
❖ (해발 1,100m/ 1억평)

2) 비교우위농산물 지역배치규획('03-'07/ '08-'15)
- 16개 품목으로 확대 : 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 감귤, 돼지, 젖소, 소, 양, 수출수산물, 감자, 천연고무



● 중국 사과 우수지역



- 사과 재배면적 : 200만ha, 2015년 ◀ 한국의 65배
- 사과 수출량 : 120만톤(2010년) → 170만톤(2015년)

● 4대 양돈 우수지역의 목표



- 연간 돼지 출하두수 : 4억마리(2015년) ▶ 한국의 37배
- 연간 돼지고기 생산량 : 3,240만톤(2015년) ▶ 한국의57배

중국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 (한-중FTA 국회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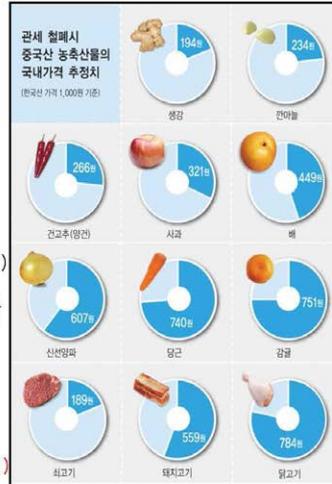
산동성 하우스만 100만동, 그나마 돈 되는 품목조차 설 자리 없다



산동성 시설채소 재배면적 : 22만ha(우리나라의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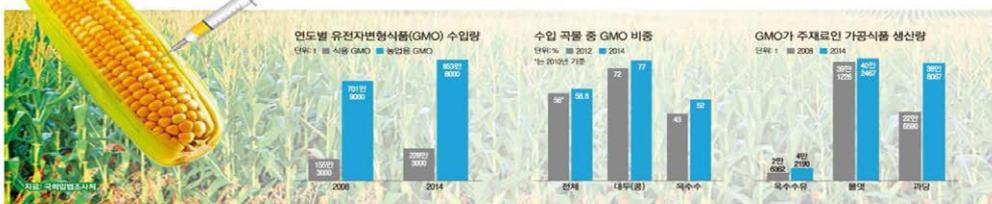
- 현 수입물량의 50% 이상이 중국산
- 수입 쌀 : 중국산 57%
- 수입채소류 비중 : 중국산 73.9%
- 수입양념채소류 : 중국산 95%
- 수입김치 : 중국산 22만톤(10kg 8,000원)
- 중국 사과 재배면적 200만ha(2015년 기준) 한국의 65배
- 동북상성 쌀 생산면적 : 264만ha/ 한국의 2.5배
- 『전국 채소산업 발전규획 (2011~2020)』 중국의 6대 채소생산 우위지역



식량자급률 23%, 먹거리주권 위협 (옥수수, 밀, 콩)

국제곡물가에 휘둘리는 식량주권/ 전방위적 GMO 노출

유전자조작농산물 생산국 현황



로컬푸드 ?

로컬푸드 정책이 필요한 이유

1

경제의 글로벌화, 농산물 이동거리 증에 따른 화석연료 낭비
= 환경파괴, 약품치리로 인한 안전성 문제

다국적 농식품복합체 주도 농업의 세계화로 지역과 농촌의 파괴

2

농산물 생산, 유통시장의 독점에 따른 농가의 소득 저하
=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구조 재편

생산과 소비의 간극으로 환경파괴, 안전성 위협, 농가의 실질적 수익 감소

3

경쟁, 고령화, 다양한 작물보호 및 식생활 개선, 지역과소화
=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

지역현실을 감안한 지역농업 재편전략의 일환(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전략)

로컬푸드의 개념

협의개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

- 얼굴을 아는 생산-소비 관계에서 먹거리 안전성 보장

광의개념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 축소

- (생산자-소비자) 농산물 거래에 가격 외의 요소 반영

소비자 선호의 맛, 안전성 ... 다양한 상품 출현의 기회

계절, 기후 변화에 생산량 변동 ... 능동적인 농산물 소비 : 생산량에 맞춰 소비량 조정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의 비지속성에 대한 반성

- ✓ 시장지향적 상업농으로 지역이 유지(지속)가능한가?
- ✓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 시스템인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장점

다품소량 생산

농가 가격결정

지력증진

생산비 보존

농가소득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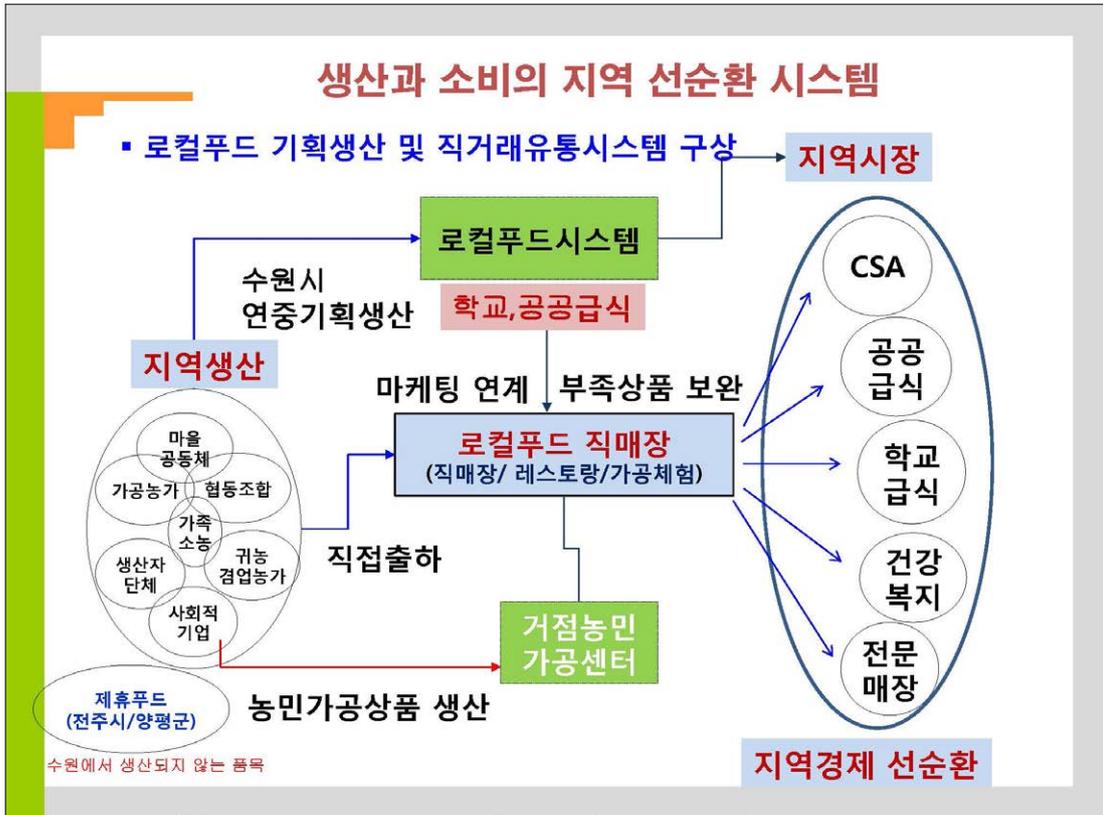
소비자 건강보호

당일 수확/포장

유통비용 절감

신선 농산물 판매

지역경제 활력



로컬푸드 성공! 필요충분 조건



로컬푸드 조직화 3대 과제

생산(가공) 조직화/ 소비 조직화/ 추진주체 확보



생산 조직화 : 다품목 소량생산

로컬푸드형 경작체계로의 전환



생산 조직화 : 지속적으로 출하 로컬푸드형 경작체계로의 전환



생산 조직화 : 토종종자(차별화)

생산비의 절감



로컬푸드 성공사례

화성로컬푸드직매장 - 국내사례

- '14. 05. 10 화성 로컬푸드직매장 봉담1호점 정식개장
- '14. 12. 22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전진대회 350여명 참석
- '15. 04. 19 봉담1호점 1주년 매출 28억
- '15. 04. 29 2015년 3차 신규농가교육 (800명 출하농가등록)
- '15. 05. 08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교육 400여명 참석
- '15. 06. 06 로컬푸드 직매장 능동2호점 임시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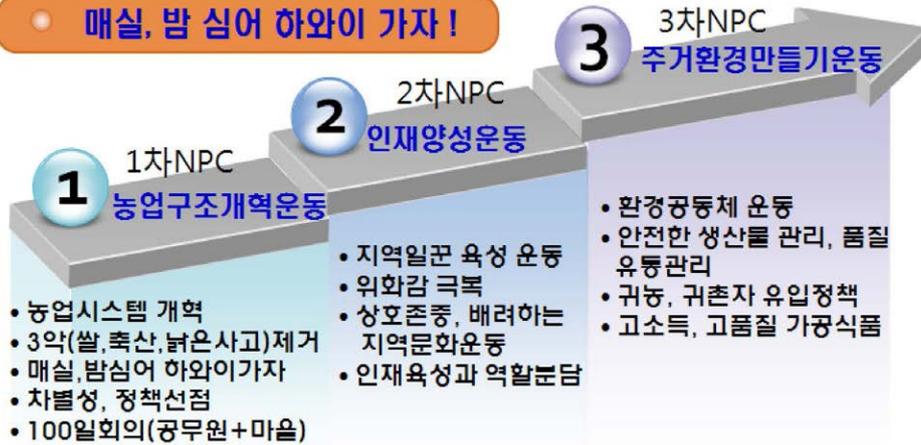
'15년 7월 30일 현재

- 매출 22억(능동점포함)
- 직매장 이용객 10만명
- 출하참여농가 950
- 출하 품목 250개

- 직원 총20명
- 봉담1호점 6명(계산원5명)
- 배송기사 1명
- 능동2호점 3명(계산원5명)

일본사례) 오오야마정의 교훈

● 매실, 밤 심어 하와이 가자!



농업구조개혁운동(1차NPC: New Plum and Chestnut)
인재양성 운동(2차 NPC: New Personality and Combination)
주거 환경 만들기 운동(3차 NPC: New Paradise Community)

일본사례) 미야자키 아야정

● 1960년대 야반도주의 마을 아야정



-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고장
- 일본 유기농업의 고장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고장

고다 미노루 정장

- 코가 빨간 정장
- 4기 16년에 걸친 일관된 정책의 실현

지역자원활용으로
소득증대

- 큐슈제일의 술(슈센노모리 / 술테마파크)
- 일호일품운동, 1평 채소밭 운동 → 유기농업, 직매소

주민자치의 실현

- 자치공민관 제도(구장제도 폐지 → 관장제도)
- 현재 약 134종의 학습프로그램, 6,800여명의 수강생

가미가츠

- 칠순 할머니들이 버려진 나뭇잎을 팔아 연 30억 수입을 올리는 '이로도미 나뭇잎 사업'
 - 고령화 사회 비즈니스모델각광,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견학 음
 - 50년 동안 인구감소만 이루어지던 마을에 인구증가

- 추진과정

- 젊은이는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산간오지마을
- 희망이 없는 마을(패배주의가 팽배)
- 젊은 영농지도원(토모지)이 마을에 오면서 변화의 시작
- 처음에는 마을에 변화를 바라는 몇몇 주민들과 쪽파, 고구마재배 시작
- 마을노인이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 1986년 나뭇잎사업시작



“농촌마을의 고령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위기를 기회로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소비자가 직매장을 즐겨찾는 이유

- 1 신선**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다



직매장

**직매장까지
최대 1일**
- 2 안심, 신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배했는지 알 수 있다


 - 단계별 잔류농약검사
 - 상품에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부착
 - 국내산 넘어, 지역산 넘어, 우리 동네산
- 3 합리적 가격** 연중 같은 가격(우리는 마트가 아니다!)

생산자 ▪ 생산비 + α 의 가격 정책 **소비자** ▪ 지역사회 의 일원, 공동운명체

직매장의 운영

4 매장운영시간 더 많은 소비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시기별조절)

농가매장개방
07시~20시

매장개장
08시~20시

휴무
명절, 추석
당일 1일

5 농가정산 출하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

수수료
판매금액 10%

정산
판매기간 1주일
90% 통장송금

6 출하자격 [수원에서 없는 농산물 제휴푸드 진행]

수원에서 농산물 생산(수원 농지)

수원에서 실제거주
(수원 주소)

직매장 출하 과정

출하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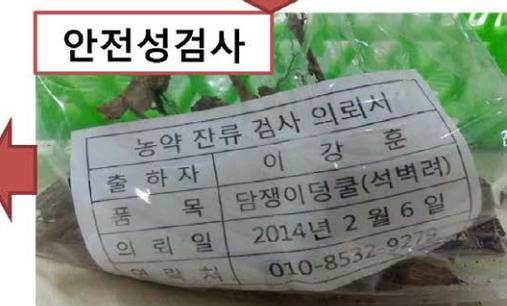
신청일자	농가번호	교육여부	연료	소화수압여부
출하자 성명	집전화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마을명		계좌번호	
농업	농업		예금주	
승하 희망 농산물 원광				
농산물명	재배형태	재배면적(㎡)	판매량(백상)	출하시기
비고				

**농가교육 이수
신청서작성**



포장재구입

연번	구분	단위	판매가격	비고
6	소포4 (대용)/PE	300장	3,000원	시금치, 냉이, 상추, 미역 등
7	소포5 (대용)/PP	2,00장	4,100원	배추, 명파, 홍박 등
8	소포6 (대용)/PP	200장	5,500원	배추, 명파, 홍박 등
9	소포1	100장	3,600원	2kg이하 곡류, 콩류
10	소포2	100장	10,400원	2kg이하 곡류



수원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진열기간

**직매장
진열기간**

엽채류 1박2일

과채류 2박3일

버섯류 2박3일

근채류 3박4일

단오박 7일

콩나물/두부/김치 등 2박3일

견과류 30일

곡류/두류 30일

주요이력

신선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직매장에 1주일 최소 2번 정도는 줄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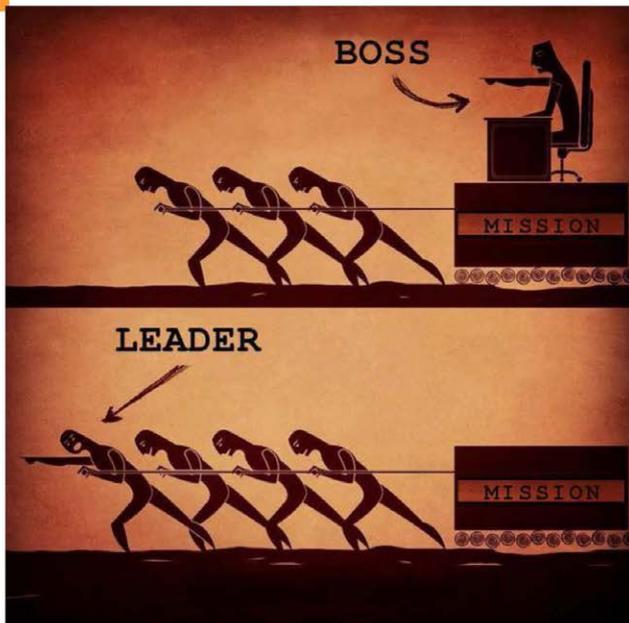
참여농가의 약속

- **비료, 농약 사용기준 준수**
- **제초제 사용 금지**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가의 책임하에!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농업

직매장 운영조직의 역할과 임무



• 명령하고 평가

• 두려움을 활용

• 말만 앞서기

• 직접 일을 추진

• 자발성과 열정 활용

• 소통을 통한 운영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방침

- 지역 생산농산물 취급비율 100% 준수
- 다품목 소량생산의 연중생산 시스템 구축
- 생산,포장,진열,가격결정 등 농가 직접 참여
- 판매금액 농가원원비율 최소 85% 이상 유지
-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민가공 활성화
-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강화시스템
- 생산-소비 사회적 거리 축소를 위한 교류활동 창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밥상

참여 생산자의 마음가짐

- 로컬푸드 매장은 내 가게이며, 나는 매장 사장
- 로컬푸드 매장에는 좋은 농산물 출아
-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
- 자식에게 주는 마음으로 농사
-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장기적 운영 가능
- 우리 가족 은 로컬푸드 직매장 단골소비자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민이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식탁이 미래다

식탁위에서 안심할 수 있다면

식탁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날이 새날이다

그날 부터 새날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

급식

송미영

수원시 동성중학교 영양사

급식!!

그 중에서도 학교급식!!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다. 두려움 혹은 설렘으로.

학생들이 급식 먹으러 학교에 온다는 말을 하는 것을 심심찮게 듣다 보면 긴장해서 또는 오늘은 어떤 급식을 준비해 줄까 하는 염려로 뛰는 가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부 교장선생님은 급식이 맛있어야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오지 않겠냐며 많은 공을 들이고 수시로 급식종사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급식을 학교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 아이에게 더 맛있고 잘 먹는 즉 기호도가 높은 급식이 나오면 좋은 급식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의심을 가져보아야만 할 것이다.

급식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건강이나 식습관교육을 무시한 채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음식이 제공되어질까봐 내심 염려스럽지만 기호도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은 가공식품이 범람하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한 끼의 식사를 할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급식이 막 교육급식으로 전환하고 있을 때 이대로 한 끼 식사만 제공하고 만족도만 높이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식품 선택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면서 앞으로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쌀나무에서 쌀이 열린다는 말을 하는 지금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식물이나 동물이 자라는 것을 직접 접해볼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스텐 식판위에 올려지는 식재료의 최종 산물인 한 끼 식사로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양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재료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지면 어떨까 싶다.

米(쌀 미) 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쌀 한 톨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최소 88번 거쳐야 생산된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은 정성을 다해 농부들이 키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잔반지도를 하다보면 밥이 먹기 싫어서,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 배식받은 밥을 미련없이 잔반통으로 버리는 것을 볼 때 식재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오로지 고기반찬만 많이 주라고 하는 예쁘장한 학생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식재료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한다면 다양한 음식을 최소한 맛이라도 보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

학교라는 공간이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곳이긴 하나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쌀에 대한 교육만이라도 먼저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다.

처음에는 생산과정 그다음에는 오감을 자극하여 느껴보고 마지막에 그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게 한다면 무조건 거부하는 현상은 없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봄에 씨가 뿌려져 더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수확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말이다.

이러한 교육은 다양한 장소가 필요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미래의 식재료 선택의 주축이 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식재료의 제철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이다.

일례로 봄에 나오는 딸기가 겨울에 제철처럼 생산되고 오히려 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에 나오는 딸기가 당도가 더 높을 정도이니 식자재를 늘 취급하는 우리들조차도 딸기를 겨울에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계절이 무시되어 식재료가 생산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수많은 가공식품 속에서 내 몸에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급식으로 첫발을 내딛는 이 시기에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과 같이 부대끼는 급식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식재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은 철저한 검수과정과 위생적인 조리과정으로 만들어지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침언을 드려본다.

수원시 먹거리 정책 토론회 토론문

구경숙
일반시민(학부모대표)

저는 정책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즘 일반적인 가정의 밥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공공 조달’ 내용을 보면,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직접 조리 확대’와 ‘가공 식품 저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 가정과 혼밥족이 늘어나는 현 추세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❶ 맞벌이 가정의 경우 퇴근 후에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 식품이나 외식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 ❷ 전업 주부가 있는 경우에도 남편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남편이 없는 식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식단 자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 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족과 함께 하는 수요일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술 마시는 날’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을 정도임)
- ❸ 혼밥족들의 경우 식재료를 구입해서 혼자 다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공 식품이나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 ❶ ‘친환경 가공 식품’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 ❷ 직장인의 퇴근 시간 보장이 곧 건강한 식사와 가족을 만듭니다.
 - ❸ 요식업의 경우, 타 지역 특산물은 제외하고 전 국토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그 지역 생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에는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고, 소비자들이 로컬 푸드 식당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걸도록 했으면 합니다.(모든 메뉴가 어렵다면, 로컬 푸드를 이용한 메뉴에 한해서라도 메뉴판에 표기를 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면 함)
 - ❹ 무엇보다 금액 때문에 질 좋은 식재료를 사기가 힘듭니다.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

